新羅誓幢和上碑의 新片

—建立年代와 名稱에 대하여—

黃 壽 永

(一)

誓幢和上이란 元曉大師를 가르킨다。그의 羅代碑 下半에 해당하는 斷石 三片은 一九一五年 五月 경주 東北方인 月城郡 內東面 暗谷里 止淵의 溪畔에서 발견된바 있었다。그 직후 이들 碑片은 서울로 운반되어서 景福宮回廊에 진열되었고 日人學者①、에 의하여 소개되었으며 또 朝鮮金石總覽이나 元曉全集 등에 실리기도 하였다。그리하여 碑文의 解讀은 三國遺事 卷四 元曉不羈條와도 대조되어서 그의 行蹟이 한층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같은 大師碑의 발견야 있은지 꼭 半世紀가 지나서 새로운 一片이 一九六八年 九月初에 경주市內 東川洞 傳稱 東泉寺址② 부근의 一農家에서 주목되어 마침내 東國大博物館에 수장되었다。필자는 이보다 약 一個月 앞서서 경주 憲德王陵을 비롯하여 山麓 밑에 東西로 길게 展開되어 있는 東川里 部落을 찾았었다。그리하여 부근 寺址나 그곳에서 옮겨진 石造物 특히 傳稱 東泉寺址에서는 破塔石材와 幢竿支柱 등을 조사한바 있었다。그러나 그 직후에 이곳에서 古碑片 그것도 旣知의 元曉大師碑가 수습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발견자인 경주 普庸混氏나 오랫동안 保管하였던 農家主人의 말을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發見場所는 傳 東泉寺址(이곳은 舊碑片이 발견된 暗谷과 약 十餘里相距이다)인데 日政때 寺址中央에는 日人經營의 製紙工場이 있었다。해방후 그 工場은 철거되었고 약 十餘年前 다시 畓으로 변경되었을 때 이 碑片이 출토되었다。그리하여 一面에 사겨진 文字보다는 이 돌의 表面이 平坦하여 打穀用으로 사용코저 집으로 옮겼다는바 그것은 眞相일 것이다。필자가 同地域을 조사할 때 同行하였던 昔氏가 그後 이곳 民家에 보관된 新羅敬順王殿遺墟碑와 관련되어 「글씨사긴 돌」을 찾던 끝에 비로소 古碑片의 存在를 알게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碑片이 어찌하여 이 地點에서 出土되었는지 확실한 資料는 없다。혹시 옛날 東泉寺僧이 그 一片만을 옮긴 것일가。그보다도 一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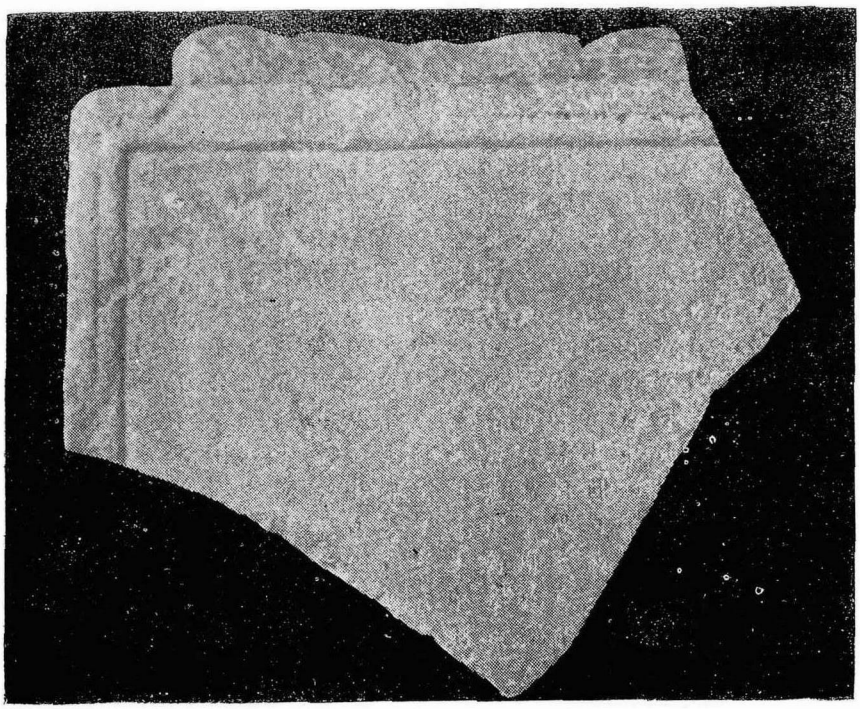

圖 1：誓幢和上碑新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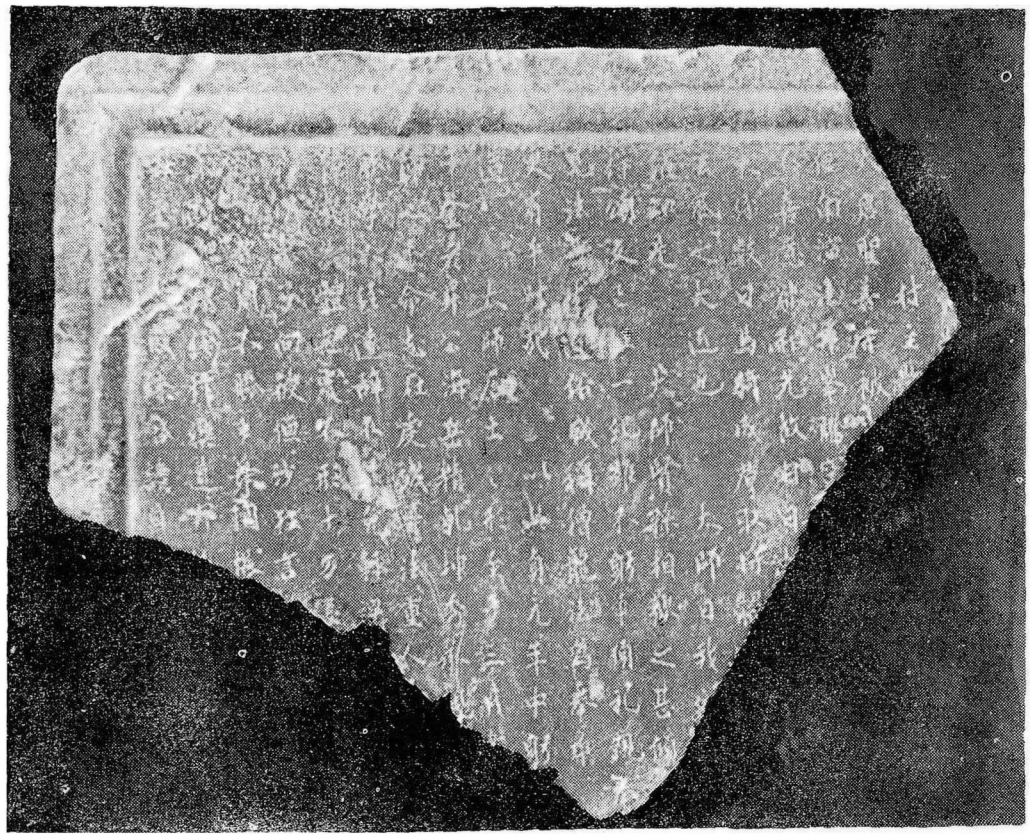

圖 2：誓幢和上碑新片拓本

一五年에 수습된 三個片이 暗谷溪畔에 있었던만큼 아마도 그 附近에서 이 一片만이 遊離되어서 東川里 製紙工場 日人에 의하여 保管되어온 것으로 보인다。洞里에서 들으니 이 日人은 古物蒐集에 상당한 취미를 가졌던 者라고도 한다。이와 비슷한 事例는 一九六一年에 文武王陵碑一片③이 의외로 慶州博物館 北쪽 담장 하나를 넘어서 舊日人家屋 庭園에서 發見된 산실이다。이 陵碑는 朝鮮朝 正祖때 善德王陵下에서 出土된 것으로서 그후 慶州官衙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아마도 韓末에서 日政初에 이르는 混沌期에 日人에 入手되어 保管되어온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아같은 傳來經緯에 대한 논의는 且置한다 하더라도 이 元曉碑의 新片이 결코 그 出土場所에 建立되었던 것은 아니며 그것은 高仙寺址에서 멀지않은 것은 既知의 三石이 발견된 부근에서 어느때인가 移動된 것으로 추정되어야할 것이다。靑池의 湧泉은 옛과 다름이 없으나 과거를 말하는 자취는 찾을 길이 없었다。

(二)

이 碑片이 발견된 직후 필자에게 보내온 拓本을 보고 곧 誓幢碑로 단정한 것은 그 周緣에 양각된 綠帶가 신라碑 唯一例이며 歐法의 行書體임과 字徑등이 舊片과 전혀 同一하기 때문이었다。그리하여 元曉碑의 半百年만의 再現에 흥분하였는데 더욱 다행한 것은 상기와 같이 기왕의 三石이 모두 碑身下半部임에 대하여 이 新片이 처음으로 그 上半部의 左上隅에 해당되어서 新舊石碑文이 上下에서 비로소 連續함을 알수 있었기 때문이다。故宮의 舊片을 再拓하고 즐거움을 참을 수 없었다。

이 碑片은 圖版에서와 같이 下部가 三角을 이룬 長方形인데 그 上端에는 螭首에 揷入되었던 枘部가 남아 있다。既往의 三片을 復元할 때 크기는 縱三尺 橫三尺一寸 厚八寸임에

行/字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村	主	□									
16	大	唐	聖	善	寺	被									
17	倭	南	演	法	□	峯	騰	空							
18	不	喜	意	欲	和	光	故	白	日						
19	未	經	數	日	馬	騎	成	群	取	將	髑	□			
20	玄	風	之	大	匠	也			大	師	曰	我			
21	知	如	是			大	師	賢	孫	相	歡	之	甚	傾	
22	得	頌	文	己	經	一	紀	雖	不	躬	申	頂	禮	親	奉
23	見	法	無	生	道	俗	咸	稱	僧	龍	法	□	奉	尋	
24	更	有	□	叔	哉			以	此	貞	元	年	中	躬	
25	造			大	師	居	士	之	形	至	于	三	月	□	
26	于	金	彥	昇	公	海	岳	精	乾	坤	秀	承	親		
27	□	心	委	命	志	在	虔	誠	尊	法	重	人			
28	能	學	不	經	遂	辭	不	□	免	輒	□				
29	偉	哉	法	體	無	處	不	形	十	方	□				
30	□	□	赤	弓	向	彼	恒	沙	狂	言					
31	□	□	欲	□	不	勝	手	舞	惆	悵					
32	不	斷	□	窟	經	行	樂	道	寂						
33	每	至	□	□	成	臻	啓	讀	日						

比하여 이 新片은 縱 一尺五寸、橫 一尺七寸 ④이며 舊石이 全文三十三行인데 이것은 一九行에 달하며 字徑 六分 書體가 行書임은 同一하다。新舊片의 文字를 對照할 때 이 新片은 第十五行부터 末尾의 第三十三行에 이르고 있어서 後半의 上部를 이루고 있다。 다만 碑面이 다소 磨泐된 것이 애석하나 그리 심하지는 않다。 다음에 新片의 文字를 기록하면서 그 밑에 舊片最下部의 文字를 부록하면 다음과 같다。 (碑陰에는 文字가 없고 研磨되지 않았다)

(舊碑片下部文字)

行					
15	:		曰	我	見
16	:	小	池	是	也
17	:	非	遙	見	神
18	:	權	宜	龕	室
19	:		是	毗	讚
20	:		回	□	語
21	:		昨	來	造
22	:		心	空	寂
23	:	寧	知	日	□
24	:	池	之	□	□
25	:		□	□	角
26	:			方	銘
27	:			撥	無
28	:				
29	:		□	□	□
30	:	其	祖	父	□
31			帝	闕	□
32			□	月	□
33					

위와같은 十九行 計 一九八字중에서 判讀이 확실한 것은 一八〇字에 달한다。 그리하여 新片과 기왕의 舊片을 上下에 두고 연속되는 碑文을 따라 新片에서 새로 주목된 句節이나 또는 建碑年代등 새로 밝혀진 사실등을 들어 보겠다。

먼저 一六行에서 大唐 聖善寺가 보이나 찾을 수 없다。 一九行에서 未經數日 馬騎成群 取將髑髏(?)라 한 것은 前行末의 「權宜龕室」과 連續되어서 大師가 春秋七十으로 垂拱二年(신라 孝昭王 六年 六八六年)三月三十日에 「終於穴寺」한 후 火葬이 아닌 葬法을 따라 龕室에 안치된 직후에 일어난 異蹟을 말하고 있다。 二〇行에서 玄風之大匠이라한 것도 大師를 尊稱한 것으로 보인다。 二一行에서 大師賢孫이라 한것은 舊碑二〇行에 보이는 日本에 使臣으로 건너갔던 大師之孫 翰林(薛) 仲業을 가르킨다。 三國史記 卷四十六 薛聰傳에는 「新羅國使薛即是居士之抱孫」이라 하였을뿐 「但不知其子孫名耳」라 하였다。 史記修撰 당시에는 逸名되었으니 이 誓幢碑 또한 일찌기 破壞되었을 것이다。 二三行에서 道俗咸稱僧龍이라한 것도 상기한 「玄風之大匠」과 더부러 大師를 가르킨 것이나 아닐가 한다。

다음에 二四行에 이르러 貞元年中이 보이는 것은 後述하려는 바와 같이 이 碑年代에 대한 考察에서 매우 重要하다。 貞元은 唐 德宗의 年號로서 신라 元聖王 元年부터 哀莊王 六年(七八五~八〇五)에 이르는바 따라서 이 碑石은 文字 그대로 貞元年中에서 또는 貞元이 지난 후로 比定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二五行에 이르러 「造大師居士之形」이라 한 것은 大師가 還俗後 小姓居士라 自號 하였다는 사실(遺事 元曉不羈)과 「既入寂 聽碎遺骸 塑眞容 安芬皇寺 以表敬慕終天之志 聽時旁禮 像忽廻顧 至今猶顧矣」(同上)라 한 것을 연상케 한다。

끝으로 가장 注目되는 것은 二六行 첫 머리의 「干金彥昇公」인데 이것을 舊碑 二五行 最下一字인 角과 연속시켜보면 角干金彥昇을 가르킨다。 그리하여 이 文句는 上記의 「貞元年中」과 더부러 碑年代를 더욱 厭縮시켜서 거의 數年以內로 比定케함은 또한 多幸이다。 그리하여 이같은 귀중한 文字를 통하여 過去의 論議를 是正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角干金

彦昇은 곧 新羅王位에 오른 憲德王으로서 그가 角干이 된 것은 三國史記에 明文이 있다。즉 同書 卷十 憲德王 元年條에

哀莊王元年 爲角干。二年爲御龍省私臣。未幾爲上大等。至是卽位

라 하였다。元年(八〇〇)에 角干이 되었다면 그가 角干에 머므른 期間은 哀莊王 元年부터 卽位에 앞서 同王 八年까지의 最大限 九年(八〇〇~八〇八)으로 잡을 수가 있다。그리고 상기한바 貞元年中(七八五~八〇五)이라 있음에서 文字그대로 貞元年中으로본다면 角干年代와 對照하여서 八〇〇年에서 八〇五年에 이르는 사이가 되며 또 貞元年中을 貞元年號가 이미 지난 後의 文字로 본다면 八〇六年부터 八〇八年 사이로 볼 수가 있다。그리하여 角干年代를 主로 하여서 八〇〇年에서 八〇八年 사이가 틀림없다。

이같은 竪碑年代의 推定은 종전의 고찰이 모두 「新羅 惠恭王時」(七六五~七七九)(「朝鮮金石總覽」上卷 一九 慶州 高仙寺誓幢和上塔碑) 또는 「惠恭王 終年(七七九)이나 또는 薛仲業이 奉使歸還한 후 祖父의 一百年忌에 相當하는 宣德王 六年 乙丑(七八五)에 세운 것이나 아닐가。元曉의 一百年忌는 마침 仲業이 日本에 奉使한 해부터 六年後에 해당한다」(葛城末治:朝鮮金石攷 研究篇 註①六四〇頁)고 말한 것보다 약 二、三十年 降下한다。그리하여 碑年代는 과거의 八世紀 末葉에서 다시 九세기初로 내려온다。신라 王代로 보아서 惠恭王이나 宣德王代가 아니라 哀莊王 一代(八〇〇~八〇八)로 推定할 수가 있다。

(三)

끝으로 이 碑石을 가르키던 名稱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을 말하겠다。從前에 있어서는 「高仙誓幢和上塔碑」 또는 高仙寺를 아니 달고 「新羅誓幢和上塔碑」라 하여왔다。高仙寺나 新羅를 冠한 것은 그의 年代나 住刹의 사실 또는 碑銘에 「高仙大師」라 한것이나 發見場所 등에서 異議가 없다。또 誓幢和上이라한 것도 碑文 첫머리에 보이고있다。그러나 塔碑라 한것은 어떠한 까닭인지 곧 이해할 수가 없다。이같은 日帝初 再發見 以前 그들에 의한 命名에 앞서서 이 羅碑에 대한 記錄은 찾을수가 없고 오직 古拓 一枚가 芬皇碑라 하고 崔詵書 芬皇寺和諍國師碑(金石淸玩)이라하여서 大東金石書(續編乾 今西龍氏本景印)에 所收되어 있을따름이다。그렇다면 이 碑는 上記와같이 일찌기 破壞되었으며 斷碑部分의 拓本만이 傳來하였다가 金石帖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한다。따라서 大師의 羅碑는 일찌기 逸名하고 芬皇寺에 建立된 高麗肅宗 때의 和諍國師碑만이 오랜 옛부터 大師의 唯一碑로 알려져왔을 것이다⑤。그런데 이 誓幢和上碑를 가르켜 塔碑라 하여왔으나 新舊斷碑를 통하여 大師를 위한 建塔의 사실을 전하는 文字를 찾을 수는 없다。그 같은 明文이 없는데도

圖 3：高仙寺址三層石塔

불구하고 羅末에서 麗代를 거쳐 近世初에 이르기까지 高僧의 塔碑가 多數 流行한 사실에서 혹시 造形에 대한 신중한 用意없이 그같은 名稱을 달은 것이나 아닐까。또는 元曉의 住刹(三國遺事卷四蛇福不言條)이었으며 그 隣近에서 碑石이 발견된 바로 高仙寺址에 三層石塔과 龜趺一座가 現存함에서 혹시나 그것을 誓幢和上과 은연중에 관련시킨 것이나 아닐까。이에 대하여 朝鮮金石攷의 著者인 葛城末治氏는 上擧한 研究論文(「朝鮮金石攷」所收)에서 다음과 같이 註記하고 있다。全文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附記]

塔碑라함: 舍利塔傍에 세우는 碑를 말한다。新羅高麗兩朝 乃至 李朝初代에 있어서는 國王이 名僧의 遷化를 聆함에 朝를 廢하고 塔名과 諡號를 賜하고 當代의 文臣에게 命하여 碑文을 撰케한다。때로는 王의 親撰도 있었다。塔碑는 即 高僧一代의 事歷을 勒한 것이다。高仙寺址는 慶州郡內東面暗谷里에 있다。寺址에는 今尙 三層石塔이 遺存하고 있다。(필자傍點)

필자는 해방후 여러차례 이 巨大한 三層石塔 一基를 조사한바 있었으며 新碑片이 收拾된 이후에도 이곳을 다시 찾은일이 있었다。이같은 現場조사는 혹시나 未收拾의 碑片을 얻고저함에 있었으나 그와 동시에 이 元曉碑가 建立되었던 原位置를 더듬어 碑趺나 또는 螭首같은 上下의 石造物을 찾고져하였던 것이다。(新舊碑片의 上下端에는 모두 插入을 위한 突起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같은 目的은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으나 塔側西南方에 埋沒되어 있는 旣知의 龜趺를 다시 조사하므로써 이것 또한 誓幢和上碑와는 아무런 關聯이 없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龜背에 파친 長方孔이 誓幢碑를 넣기 위하여서는 너무나 작았다⑥。

대저 우리나라에 있어서 僧侶의 葬法은 여러가지이며 時代에 따르던 變遷도 있었다。火葬이 三國末부터 비롯하여 이후 크게 流行하였다 하더라도 僧徒 누구나 이 方式을 따른 것은 아니다。土葬이 또한 꾸준하게 行하여졌으며 그 이외에 脫肉후 碎骨하여 塑像을 만들기도 하였다。元曉和上의 경우는 碑文에 上記한 「權宜龕室」 또는 「馬騎成群取將髑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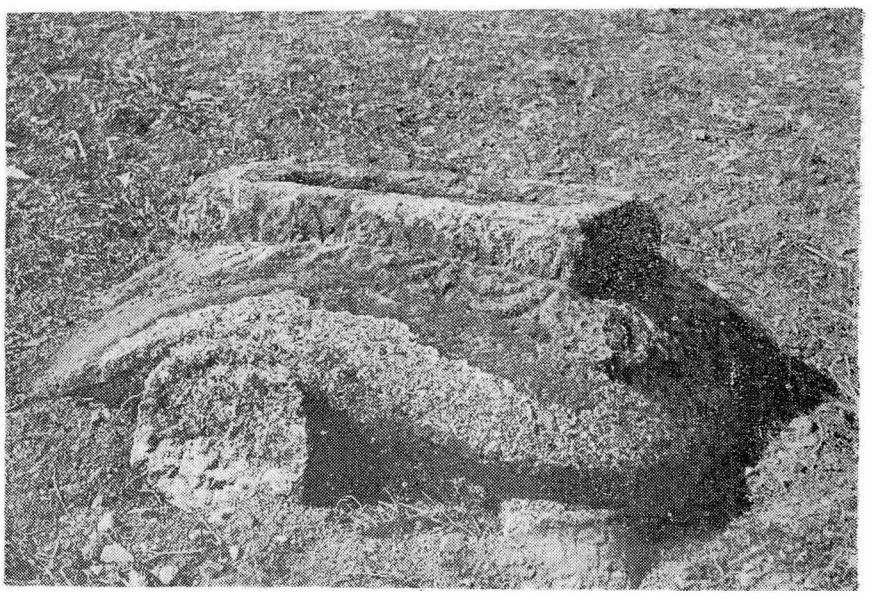

圖 4：高仙寺址三層石塔傍新羅龜趺

하였다는 文句 또는 三國遺事에 「聰碎遺骸 塑眞容」하여 芬皇寺에 안치하였다는 것은 모두 火葬한 사실은 아니며 그렇다고 土葬한것도 아니다。羅麗代 塔碑의 建立은 火葬의 경우가 많았으며 土葬의 경우도 있었으나 元曉와 같이 碎身塑容하였다면 遺灰나 遺骨을 奉安하고 建塔하는 浮屠

의 造形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마땅할것이다。그는 破戒후 居士의 身分으로 지냈으므로 비록 「終於穴寺」 하였다는 文句와 같이 寺刹에서 入寂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위하여 立塔은 아니하였을 것이다。三國遺事(元曉不羈條)에 「曉嘗所居穴寺 旁有聰家之墟」라 있음에서 그 사이의 소식을 짐작할 수도 있다。또 元曉의 沒年인 統初의 神文王 六年 丙戌(六八六)에는 아직도 後代에 보는바와같은 高僧大德을 위한 塔碑의 并立은 없었다고 추정된다。하물며 그의 名聲이 비록 在世時에 높았다하더라도 入寂직후 居士의 身分을 위하여 建塔 더욱이 現存하는 高仙寺石塔 같은 大塔을 그를 위하여 새로 旣存寺域內에 建立아니하였을 것도 사실일 것이다。그리고 이 碑가 이제 八〇〇年을 막 넘는 九世紀初로 推定된 이상 이 高仙寺塔의 年代⑦가 경주感恩寺塔과 더불어 七世紀後半이므로써 서로 아무런 連關을 생각할 수도 없다。그러므로 高仙寺址의 石塔을 막연하게 元曉住刹의 사실에서 그와 관련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그의 碑를 塔碑라고 命名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그리하여 앞으로는 塔字를 省略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⑧。

이상 필자는 새로 發見된 元曉碑一片을 설명하였다。日政初 高仙寺址가 남아있는 경주 暗谷에서 수습된 同碑片 三石이 이번에 발견된 新片과 上下의 連續을 얻었으며 碑文中에서 貞元年中이나 角干金彦昇같은 신라王者를 찾아서 그 年代를 한층 正確하게 추정할 수가 있었다。이어서 종전의 名稱에 대하여서는 막연하게 塔碑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의견을 말하였다。그것은 古代의 文字나 傳說의 解釋만으로서 塔碑같은 造形物을 判定하던지 또는 後代의 類例에서 現場이나 現品에대한 고찰없이 發說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이 新片은 참으로 의외의 場所에서 수습되었다。그곳이 비록 신라의 東泉寺로 추정되는 寺址이기는 하나 어떤 관계를 速斷할 수는 없다。앞으로 未發見된 殘片의 수습을 기하면서 간략하게 소개하여 두는 바 이 新片의 發見은 생각할수록 多幸이라 하겠다。

〔註〕

① 小田幹治郎 「新羅の名僧元曉の碑」(「朝鮮彙報」 一九二〇年 四月號)、葛城末治 「新羅誓幢和上塔碑について」(同氏著 「朝鮮金石攷」 研究篇所收)

② 東泉寺에 대하여서는 三國遺事 卷一 新羅始祖 赫居世王條에 「剖其卵得童男。形儀端美。驚異之。浴於東泉」이라 하였고 그밑에 「東泉寺在詞腦野北」이라 보이며 同卷二 元聖大王條에는 「靑池卽東泉寺之泉也。寺記云。泉乃東海龍往來聽法之地。寺乃眞平王所造。五百聖衆。五層塔、并納田民口」라 보인다。東國大博物館은 이 부근에서 出土된 塑像頭部와 靑銅圓形舍利孔蓋各一을 소장하고 있다。

③ 洪思俊 : 文武王陵碑의 斷片(「美術資料」 三號 一九六二年)
同 上 : 文武王陵碑 (「考古美術」 五一六 一九六二年)

④ 이 尺寸은 全石의 것인데 字面만은 縱 四二㎝、橫 五〇㎝이며 上柱部는 高 六㎝、橫 四〇㎝、厚 一一㎝、周緣帶의 幅은 五㎝이다。

⑤ 그러므로 高麗史 卷十一 肅宗六年 辛巳八月癸巳條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詔曰。元曉義相東方聖人也。無碑記諡號。厥德不暴。朕甚悼之。其贈元曉大聖和靜國師義相大聖圓敎國師。有司卽所住處。立石紀德以垂無窮。

⑥ 舊碑三片 下端에 마련된 龜背孔에 挿入될 突起는 길이 82㎝인데 寺址의 塔西南便에 위치한 龜趺의 長方孔은 56·5㎝이어서 碑의 크기에 비하여 너무나 작다。

⑦ 高仙塔의 年代에 대하여서는 內外學者가 모두 新羅統初 七세기 後半으로 推定하고 있다。高裕燮 선생은 「大略 文武·神文王間의 創建이었을 것이다」 (「東方學志」 第二輯所收 朝鮮塔婆의 樣式變遷 高仙寺塔條) 藤島亥治郎博士는 「建造年代는 新羅統一紀의 前半에 있어 後半으로 降下하지는 않을 것이며 當寺에 元曉在住頃에는 이미 立塔되고 있었을 것이다」 (「慶州中心と也せる 新羅時代 一般型三層石塔論」)

⑧ 이와 관련하여 朝鮮金石攷의 著者가 경기도 高達院址에 전래하는 逸名浮屠 一基와 龜趺 一座를 들어 同書 研究篇에 수록된 「高達院址の 逸名龜趺と 浮屠に 就て」라는 論文에서 新羅의 圓鑒大師塔碑龜趺 또는 同大師舍利塔이라고 推定하고 그같은 名稱을 提案하였는데 곧 贊成할 수 없다。그 까닭은 이 逸名浮屠가 羅末의 作品이 아니며 그의 立論이 現品에 忠實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塔銘이나 塔碑가 발견 아니된 이상 圓鑒 이외의 다른 高僧大德의 浮屠가 이寺址에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附註〕

一九三一年 六月 당시의 慶州博物館長 大坂金太郎氏의 記錄에 의하면 「碑身斷片은 河流中에서 發見 分館保存이라 하였는데 最初의 三片 (景福宮勤政殿回廊陳列) 以外에 다른 碑片이 慶州分館에 收拾되었는지 未詳이다。

(慶州遺蹟遺物調査書 一、高仙寺三層石塔條에 의함)